사 설

비구니회관 건립 의미

전국 비구니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회관의 건립이 실현된다. 9월 10일 회관 기공법회를 갖고 3년후에 완공될 예정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 비구니회관의 건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불법홍포와 수행정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심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구니스님들의 포교, 교육, 수행, 복지활동 등의 중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이 없어 공동체적 결집력이 약했던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한국불교의 장을 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불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힘을 합쳐야 한다. 벽돌 한장을 쌓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자. 이러한 인연 공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번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힘을 결집시켜 화합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절반이나 되는 6천여 비구니스님들의 자비와 지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중사회이다. 고도의 산업화과정을 거쳐서 정보화, 세계화된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사찰단위의 수행과 교육 및 대중교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회관건립의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비구니스님들의 포교와 교육의 종합도량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기원한다. 오늘날 포교의 대상도 다양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주길 기다리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포교나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환자,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포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는 비구니스님들이 한층더 전법교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분야의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비구니스님들의 포교방법과 교육체계가 이 회관에서 개발되고 실천되길 바란다.

또한 회관이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교의 수행과 화합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 수행공동체로서의 전통사찰의 기능과 화합공동체로서의 현대도시형 사찰의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미 체육시설, 도서관, 교육장, 연회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자비와 지혜와 복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다. 문화예술공연도 할 수 있고,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인간미가 넘치는 사랑방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불사를 계기로 불교계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남녀불평등과 갈등이 해소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 비해 우리 불교계가 너무 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종헌종법에는 사부대중으로 종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만물이 평등하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무행정과 종회 등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러한 불교계의 차별과 갈등이 해소되고 본래 부처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화합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독서의 계절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우리가 남인가'

이웃을 돕는사람들 '실직가정어린이 열린학교'

송광사회복지관 '무자격실직자 자활지원'

실업극복 프로 선정

실업극복국민운동, 1차 지원 23건 확정…2차 공모마감 10월 10일

불교계 3개 단체의 실업극복 프로그램이 실업극복국민운동(공동위원장 송월주·김수환·강원용)의 1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의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와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스님)의 '반농반도시의 지역사회 특성을 이용한 무자격 실직자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실업극복 제안 사업 제1차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의 '우리가 남인가' 프로그램은 내주 실업극복국민운동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사업예산을 부분 삭감(2억8천만원에서 50% 삭감 예정)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실직가정 어린이…'는 실직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대졸 미취업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숙제 지도 및 특별학습(가족신문·동네지도 만들기, 문화유적 답사, 과학관 탐방 등) △영어 미술 음악 과학 등 취미생활 프로그램 △결식아동을 위한 저녁 급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 5천3백8만원, 자부담 9백7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된다.

'반농반도시…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실직자중 한시적 또는 실직한 생활보호대상자 5백여명을 대상으로 인근 영세농촌가구와 실직자와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직한 유휴 노동력을 광산구내 인근농가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 △소촌공단과 하남공단을 대상으로 생산직위주의 취업 알선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이 주요 내용. 총소요예산은 3천6백여만원, 국민운동기금은 2천1백여만원 지원 된다.

사회복지재단의 '우리가 남인가' 프로그램은 가정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업가정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특히 '가족 사랑' 수당(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자조클럽 '두레'를 발족시키며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도록 '부부사랑 가꾸기' 프로그램(부부간 감정표현·의사소통 기술 훈련 및 역할극, 1박2일 산사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주요 수행장소는 서울 옥수·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양사회복지관이다.

실업극복제안사업의 제2차 공모 마감은 오는 10월10일.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가정의 겨울나기돕기 지원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사업기간은 1년이내. (02)6700-50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방한 중국불교대표단 초청만찬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불교우호단(단장 성휘스님) 23명 초청 월주스님 환영만찬이 12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정산(천태종 감사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총지화(총지종 통리원장) 효강(총지종 법장원장) 송정(조동종 총무원장)스님과 각 종단 총무부장스님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월주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의 선조들이 꽃피운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한편 중국불교우호단은 12일부터 8박 9일간 조계사, 봉원사, 법주사, 해인사 등 한주요사찰을 방문하고 20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의식집전 금지해야"

조계종 본사 포교국장회의, 포교원에 건의

조계종포교원은 15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어 포교사 배출 및 불교교양대학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교국장들은 부산 유마힐포교원 치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포교사 배출과정부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포교사고시 응시자의 교구본사 주지 추천서 첨부 △포교사의 의식집전 금지의 종령화 등을 포교원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종단 등록 51개 불교교양대학과 재가포교사가 설립해 운영하는 포교당 실태를 조사한 후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중 공청회를 열어 포교사 배출 및 불교교양대학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교구본사 포교국장과 포교원 포교국장 성수스님, 연수국장 법경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7일부터 12일까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불교평화회의 제9차 총회에서 제10차대회를 2년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

ABCP 10차 총회 2000년 서울서

몽골총회서 만장일치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는 7일부터 12일까지 몽골리아 울란바토르 강단 사원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 한국을 정식국가본부로 승인하고 제10차 총회를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신개발로 세계를 지탱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세계 23개국의 300여 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월탄스님(한국국가본부장)과 송묵스님(한국국가본부이사) 법기스님(〃), 사무총장 이치란씨 등이 참가했다.

한국국가본부장 월탄스님은 16일 서울 법련사에서 제9차 총회 보고회를 갖고 "2000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불교역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달라이라마를 제주도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북한불교대표자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본말사 주지연수 평가

조계종 본사 교무국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은 16일 오후 3시 본사 교무국장회의를 열고, 98년 본말사 주지연수회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역별로 실시된 98년 본말사 주지 연수회는 예년에 비해 수준높은 강의와 높은 참석률, 치밀한 준비 등으로 성공적인 연수가 실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정서에 맞는 전문연수원의 부재와 자발적인 연수회 참여유도, 종무행정과 포교방법에 대한 강의 등은 향후 연수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월산스님 1주기 추모 25일 불국사 대웅전

성림당 월산대종사 1주기 추모 대법회가 25일 오전 10시 불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이번 월산스님 추모법회는 98 경주문화엑스포 토함산 불국사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봉행돼 전국의 불자와 스님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10월 창립

진각·지은스님 임시 공동회장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10월 15일 창립된다. 태고종 소속 비구니스님 31명은 12일 선암사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내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기로 하고 진각스님(보현정사)과 지은스님(공덕사)을 임시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과 총무 등 임원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비구니스님 31명과 연화비구니회에서 활동했던 스님 18명 등 모두 49명의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된 창립발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창립발기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및 임원단 공식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이날 전국비구니회 창립 목적을 승가의 위상제고와 종단발전, 불교중흥에 두고 삼보호지, 종권수호, 교육·문화·사회복지 및 봉사, 회원 친목도모사업 등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을 제정, 공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의료원 개원 10주년 및 경주병원 증축 준공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병원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연구하는 병원,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병원,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가장 모범적인 병원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록원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조재호
경주병원 병원장 서정욱

기념식 1998. 9. 29(화) 11시

개설진료과목
· 내과 · 신경과 · 정신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피부과 · 마취과 · 진단방사선과
· 임상병리과 · 해부병리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예방의학과 · 치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90-1번지
전화:(0561)748-9300
팩스:(0561)770-8500